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힘찬 레이스 2013 세계 조정선수권대회 예선경기가 25일 충북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시작했다. 남자 콕스리스 포어 부문에 출전한 네덜란드(앞에서 뒤로)와 스페인, 크로아티아 등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KIA, 아기호랑이 지명은 “즉시 전력감”



역대 ‘투고타저’... 150km대 윤석민·김진우 등 우선 영입 올해 얹어진 선수층에 야수진 눈독... 오늘 신인 2차 지명

‘호랑이 군단’의 신인지명은 ‘투고 타저’였다. 빠른 공을 가진 투수가 타이거즈의 우선 영입대상이었다. 프로야구 최고 계약금과 함께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던 한기주(동성고)를 필두로 윤석민(야탑고)·김진우(진흥고)·곽정철(광주일고)·임준혁(동산고)·이범석(청주기공)·양현종(동성고)·한승혁(덕수고) 등을 찍으며 150km대 ‘강속구 군단’을 형성하기도 했다.

특히 ‘2005 라인’은 강속구 흥행라인이었다. 곽정철·윤석민·이범석이 나란히 이름이 불리면서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 스피드 업을 이끌었다.

‘2006 라인’도 마운드 중심으로 주목을 받던 막강 라인이었다. 고희 출신인 한기주·손영민·박경태·진해수가 2006년 입단 동기. 스피드는 물론 우완 정통파·언더·좌완으로 구색을 갖추며 알짜배기 라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손영민이 음주사고로 임의탈퇴 신분이

됐고, 한기주가 어깨부상으로 긴 재할에 들어갔다. 진해수는 SK로 트레이드 되면서 최고의 위용을 자랑한 ‘2006 라인’이 해체됐다.

‘2012라인’도 나름 마운드 흥행작이다. 입단 첫째 KIA의 필승조를 꿰찬 박지훈(단국대)과 팔승조 재할을 끝내고 본격적인 프로 도전에 나선 좌완 임준섭(경성대)이 입단 동기. 롯데로 이적했지만 지난 시즌 배짱투로 눈길을 끌었던 홍성민(한양대)과 올 시즌 투수로 전향해 가능성을 보여준 김윤동(경북고)도 2012년 입단 동기. 여기에 각각 8·10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은 황정립(고려대)과 윤완주(경성대)는 야수 백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올 시즌 가장 많은 6명의 동기가 1군 무대를 밟았다.

2000년대 KIA의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선수 중 올 시즌 1군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모두 35명. 이중 11명은 동지를 올렸다.

2000년 해태 선수로 출발을 했던 강영식(롯데)·김상현(SK)을 시작으로 김경연(한

화·2001년), 신용운(삼성)·문현정·이현곤(NC·이상 2002년), 서동욱(넥센·2003년), 박근홍(삼성·2004년), 진해수, 박상혁(NC·2009년), 홍성민이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광주일고 출신이 2006·2008년을 제외하고 2000년대 들어 매년 지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에는 단국대가 강세다. 나지완(2008년)과 박지훈이 이어 지난 시즌에는 손동욱·이흥구·박찬 세 명이 한번에 KIA의 선택을 받았다. 신고선수로 출발한 이종환도 단국대 출신이다.

지난해 10라운드에서 모두 지명권을 행사한 KIA는 ‘즉시 전력감’과 ‘인성’을 강조하며 9명을 대졸출신으로 선발했다. 이중 손동욱·이흥구·고영우·박준표가 1군에 얼굴을 비추기는 했지만 깜짝 스타는 탄생하지 못했다.

2000년대 신인 깜짝 스타는 김선빈을 꼽을 수 있다. 김선빈은 화순고의 중심타자와 에이스로 활약하며 입소문이 자자했지만 신체 조건 때문에 2008년 6라운드에서 뒤늦게 이

름이 붙었다. 7라운드 지명 선수가 대학 진학을 하며 사실상 마지막 선수로 입단을 했지만 센스를 알아본 조범현 감독의 신임으로 이내 팀을 대표하는 내야수로 자리를 잡았다. 흥세완 타격코치도 당시 스카우트였던 김평호 코치의 눈에 들면서 2000년 해태 2차 11라운드에서 지명, ‘100타점 유격수’의 기록을 만들기도 한 깜짝 스타다.

26일 2014 신인 2차 지명회의가 열리면서 KIA의 선택을 받게 될 ‘아기호랑이’에 관심이 쏠린다. 올 시즌에도 KIA는 ‘즉시 전력감’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선수들의 군인대 문제와 얹은 선수층 때문에 이번에는 야수진에 우선 눈길이 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 꿈나무들의 행선지도 관심사다. ‘월성 부른 떠일’ 진흥고 에이스 하영민, 동성고 에이스 박규민과 청소년 대표로 선발된 광주 일고 3루수 정기훈, 순천 효천고 유격수 박계범 등이 프로 직행이 기대되는 유망주들.

동성고 출신의 형제 야구인 탄생도 앞두고 있다. LG 문선재의 동생 문진재(원광대·내야수), KIA 고영우의 동생 고영표(동국대·투수)가 지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순철 KIA 수석코치의 아들 이성근(연세대)은 내야 블루칩으로 꼽히면서 또 다른 부자 야구인이 탄생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



Ryu 힘차게 던졌지만... 또 초반 징크스... 보스턴전 1회 4실점, 시즌 5패째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왼손투수 류현진(26)이 경기 초반에 부진하던 징크스를 넘지 못하고 시즌 5패(12승)를 떠안았다.

류현진은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투수로 1회에 4실점을 내며 3루수 정기훈, 순천 효천고 유격수 박계범 등이 프로 직행이 기대되는 유망주들.

동성고 출신의 형제 야구인 탄생도 앞두고 있다. LG 문선재의 동생 문진재(원광대·내야수), KIA 고영우의 동생 고영표(동국대·투수)가 지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순철 KIA 수석코치의 아들 이성근(연세대)은 내야 블루칩으로 꼽히면서 또 다른 부자 야구인이 탄생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

류현진은 이날 보스턴의 선두 타자 제이 코비 엘스버리를 공 2개 만에 유격수 방블로 처리하며 산뜻하게 출발하는 듯했다. 그러나 2번 타자 세인 빅토리아에게 몸에 맞는 공을 던진 이후 잇따라 안타를 맞았다.

더스턴 페드로이아에게 내야 안타를 내준 이후 4번타자 마이크 나폴리에게 적시타를 맞고 이어 조니 콤스에게는 스리런 홈런을 맞았다.

류현진은 이날 전체 투구(89개)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31개를 1회에 던져 ‘초반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류현진은 초반 위기를 벗어나자 안정감을 되찾았다. 2회를 공 8개 만에 삼자 범퇴로 처리하는 등 2~5회를 무실점으로 막고 5이닝을 책임졌다. 그는 5회말 공격 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대타 니 푼토로 교체됐다.

류현진은 경기후 인터뷰에서 “적시타 맞은 건 괜찮았는데 한방에 점수를 무더기로 준 게 잘못됐다. 3점홈런 맞은 게 패인이다”며 “1회에 홈런을 맞거나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1회에는 코너워크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역시 박지성!... ‘친정’ 복귀 1호골

(에인트호번)

헤라클레스 원정 교체 출전... 0대 1서 후반 41분 동점골 공식경기 1년 7개월만에 짜릿한 골 맛... 재도약 청신호

‘산소 탱크’ 박지성(32)이 유럽의 ‘친정’인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빠른 적응력을 보이며 재도약의 청신호를 켜었다.

박지성은 25일(한국시간) 네덜란드 알발로에서 열린 2013-2014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지에(1부리그) 4라운드 헤라클레스와의 원정 경기에 교체 선수로 나와 후반 41분 1-1을 만드는 동점골을 터뜨렸다. 박지성의 시즌 1호골이자 복귀후 첫 골이다.

2005년 이후 8년 3개월여만에 에레디비지에 경기에 복귀한 박지성은 팀을 패배위기에 구해내는 득점포를 가동하며 에인트호번 팬들에게 회관한 복귀 신고를 했다.

박지성이 공식 경기에서 골을 넣은 것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시절인 2012년 1월 28일 FA컵 리버풀과의 경기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지난 시즌 퀸스파크 레인저스(이하 QPR)

로 옮기고 나서는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부진에 빠진 박지성이지만 유럽에서 처음 뛴 팀인 에인트호번으로 돌아와서 전경기 시절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21일 AC밀란과의 경기에는 선발로 출전해 68분간 뛴 박지성은 당시에 베테랑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챔피언스리그와 같은 큰 경기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준비한 AC밀란을 상대로 박지성은 맨유에서 쌓은 노련미를 발휘하며 에인트호번의 1-1 무승부에 큰 힘을 보탤었다.

특히 68분을 뛰며 8.8km를 뛰는 왕성한 활동력을 선보여 ‘산소 탱크’라는 전경기 시절의 별명이 자연스럽게 다시 거론되게 만들었다. 박지성이 교체돼 나갈 때 에인트호번 홈팬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그의 응원가를 불러주는 장면이 박지성의 성공적인 복귀전을 입증했다.

복귀 후 두 번째 경기이자 네덜란드 리그 첫 번째 경기였던 25일 헤라클레스와의 경기에서도 박지성의 진가가 빛났다.

팀이 0-1로 뒤진 상황인데다 주전 미드필

더인 조르지니오 바이날롬이 발목을 다쳐 나오는 상황에서 투입된 박지성은 특유의 부지런한 몸놀림을 보이며 가라앉아 있던 팀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후반 30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상대 수비수의 경고를 끌어내는 반칙을 얻어내는가 하면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해 헤라클레스의 공격을 저지에 차단했다.

결국 동점골은 후반 41분 박지성의 발끝에서 터져 나왔다. 스티븐 스카스가 페널티지역 안에 있던 박지성에게 공을 연결했지만 상대 수비수 두 명이 에워싸 슈팅으로 연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지성은 중심을 잃으면서도 재치있게 몸을 돌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오른발로 슛을 날렸고 베테랑의 슛은 골대 왼쪽 구석을 정확히 향하며 에인트호번을 시즌 첫 패배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박지성은 “슈팅한 볼이 느려서 골대까지 들어가는 데 오래 걸렸다”며 “나의 골 기록보다 힘든 경기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지성은 29일 오전 3시45분 2013-2014 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AC밀란과의 원정 경기 출전을 준비한다. /연합뉴스



광주FC, 사령탑 교체 후유증 날린다

오늘 밤 수원과 2라운드 대결

사령탑 교체로 진통을 겪은 광주 FC가 연승으로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

광주 FC가 26일 오후 7시30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수원 FC와 K리그 챌린지 2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수원과의 전적은 1승1패. 비슷한 팀 컬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상대지만 최근 불붙은 공격을 감안하면 광주에게는 연승을 올려볼 수 있는 기회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서 리드 선두인 경찰축구단을 상대로 3-1 승리를 거두며 후반기 첫 승을 장식했다. 남기일 감독대행 체제에서 맞은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사령탑 교체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했다.

공격의 핵심은 역시 ‘브라질 특급’ 루시오다. 루시오는 폭넓은 움직임과 강력한 원발 슈팅으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고 있다. 여기에 공격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김호남과 상승세의 박현, 김준연, 박정민 등이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알뜰하게 경기를 풀어가던 여름이 경교로 누적으로 수원전에 나설 수 없지만 부진한 전경호가 기다리고 있다.

광주 신고식이었던 지난 경찰과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 골을 기록한 ‘이적생’ 이광진도 새로운 전력으로 급부상하면서 다양한 전술 조합이 가능하다.

광주는 1위 고지를 위해 고삐를 늦출 수 없는 만큼 초반부터 강한 공세로 상대를 압박하겠다는 각오다. 거침없는 공세를 위해 수비진이 얼마나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친정팀 상대에 나서는 K리그 최장신 복이(보그단)와의 공중전도 중요한 승부처다. 광주는 지난 4월 수원과의 홈경기에서 201cm의 복이와 174cm 박종찬의 스피드를 묶은 ‘빅 앤드 스몰’ 조합에 고전하며 3-4 역전패를 당했다. 최근 수원 조력 감독이 다양한 조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트 피스 상황에서 약점을 보여왔던 광주에게 복이의 높이는 우선 경계 대상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